



안정과 성장 기반 정착의 한해

(주)대우건설

어렵고 힘들었던 2008년도 어느덧 저물고,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밝아오는 새해와 더불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난 2008년 대우건설은 3년 연속 시공 능력 평가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최고 건설업체의 자리를 수성하였고, 국내외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설업계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과 성장 기반 정착을 통해 500년 연속 기업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업 구조의 안정화, 건설한 재무 구조 구축, 아름다운 기업

문화 확립」과 같은 중장기 비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세계 금융 위기 도래와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으로 원자력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건설업계의 희망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원자력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 제시와 더불어 기존의 국내외 원자력 산업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회사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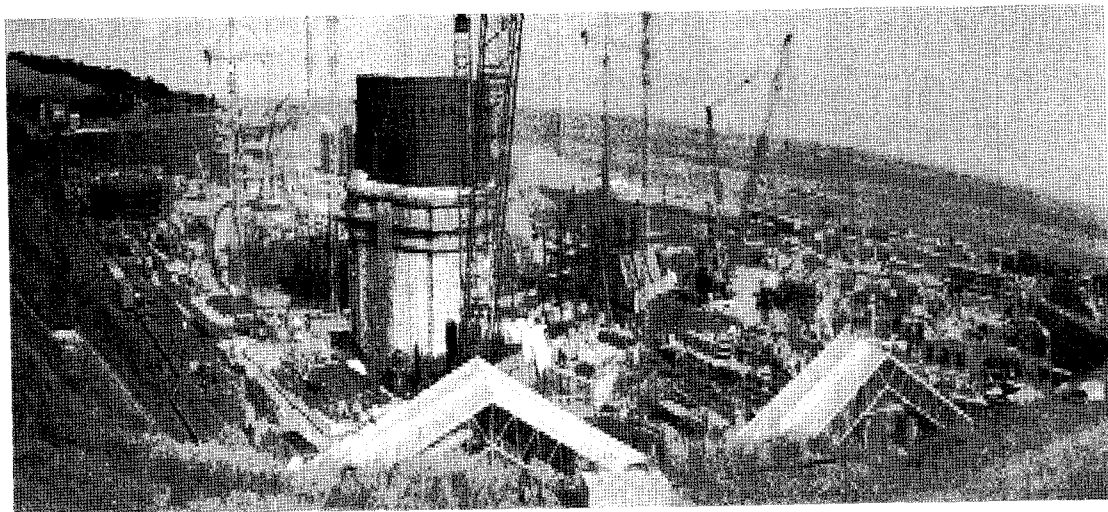
신월성 원자력 현장

신월성 1, 2호기 주설비 공사는 2003년 7월 계약 이후 인허가 문

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토목 공사의 주작업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옥외 매설물 설치 공사 및 콘크리트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작년 초부터 건축 구조물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원자로 건물, 보조 건물, 복합 건물 등 본관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특히 1호기 원자로 건물 격납 철탑 설치 공사는 적정한 인양 크레인 선정 및 최적의 부지 활용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현장 부지가 좁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작년 5월에 CLP(Containment Liner Plate) 조립에 착수하여 현재 CLP 15단까지 성공적으로 조립, 인양 및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구조물 공사와 연계된 기전 분야의 초기 작업인 매설 배관, 매일 접



신월성원전 공사 현장

지 및 전선관 작업이 건축 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어왔으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기전 분야의 노출 배관, 덕트 및 기기 설치 작업도 착수하였다.

올해는 기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올해 당 현장의 최대 이벤트인 1호기 원자로 설치가 8월 1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원자로 설치 이후부터는 공사가 피크 시점으로 진입하여 당 현장 공사 착수 이래 최대의 인력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작년에도 발주처의 촉진 공정 추진 요청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작업 등 돌관 작업으로 많은 부분의 공정을 진행시켰으나 금년부터는 정책적으로 단축 공정을 가시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25% 정

도로 토목 공사는 건물별 되메우기 작업, 옥외 매설물 중 345KV 스위치 야드의 GIB Tunnel 작업, 공사용 도로 이설 공사가 진행중이고 콘크리트 생산 시설을 운영중에 있다

건축 공사는 한중양생 등 겨울철의 열악한 작업 여건하에서도 작년 말에 원자로 건물의 외벽 8단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계약상 금년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원자로 설치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보조 건물도 초기 전원 가압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작년 추석 이후 100일간 돌관 작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공기 촉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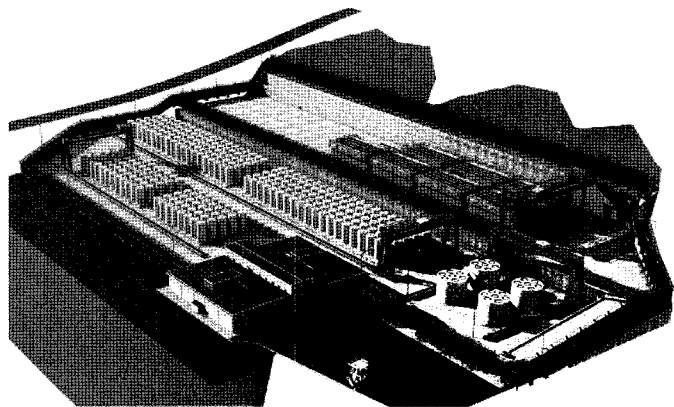
기계 공사는 격납 건물 벽체 철관을 15단까지 완료한 후 최근 폴라 크레인 브라켓 설치를 완료하였

고 돔 철관 조립 설치를 위한 조립장을 조성중에 있다.

그 외에 각종 기기설 치 및 공기조화 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중이며, 1호기 CLP 인양을 위해 사용중인 링거 크레인(1300톤)은 2호기 CLP 인양을 위하여 1호기와 2호기를 오가며 중량물을 인양할 예정이다.

배관 공사는 원자로 건물, 보조 건물, 복합 건물 및 비상디젤발전기 건물의 매설 배관 위주의 작업에서 작년 말부터 보조 건물 노출 배관 설치를 시작으로 복합 건물, 비상디젤발전기 건물 및 원자로 건물의 노출 배관 설치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부터 본격적인 배관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전기 공사는 원자로 건물, 보조 건물, 복합 건물 및 스위치 야드의 매입 접지 및 전선관 설치 공사를



조밀 건식 저장 시설 조감도

수행중이며, 보조 건물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스위치 야드 겐트리 타워 철구조물 설치가 진행 중이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배관 작업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전기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당 현장은 2007년까지는 부지 정지, 본관 기초 굴착 공사 및 해상 공사 등 토목 공사 위주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건축 구조물 공사 위주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연계된 기전 분야 매설 공사가 착수되었다.

금년부터는 토목 공사, 건축 공사, 기계/배관 공사, 전기 공사가 복합적으로 추진되므로 복합 공정에 따른 분야별 공정 분석 및 조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수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축 공사 및 기전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작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전 현장에 다양한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될 것이므로 작업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노무 관리 및 안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건설 인력 수급을 기여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용접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이어서 건축 및 전기에서 필요한 직종의 기능공 양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 현장 우선 채용, 발전소 주변 상가 활성화, 지역 봉사 활동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할 것이다.

**월성 조밀건식저장시설 및
압력관저장시설 건설 공사**

월성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수로형 (CANDU) 사용후연료를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조밀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주요 공사 내용은 기존 캐니스터 저장 시설 뒤측의 둔덕을 부지 정지하여 MACSTOR /KN-400 부지를 확보, 모듈 7기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또한 작년 7월에 계약한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 시설 공사는 압력관 교체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외부에 저장하기 위한 저장 시설로서, 기존 캐니스터 인근에 4기를 별도 신설하는 건설 공사로 올해에 조밀 건식과 압력관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는 공사이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1단계 건설 현장**

국내 원자력산업계 최대 난제였던 방폐장 건설 사업이 2007년 11월 9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부지 일대에서 착공된 후 2008년 12월 31일 현재 12.9%의 공정 진행을 보이고 있다.

2008년 7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설, 운영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환경관리센터 시설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09년 7월 1일 시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난 20년간 표류했던

방폐장 부지 선정이 주민 투표로 결정됐고,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의 기본 전제 조건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통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지상 지원 시설 부지 정지 공사 완료 후, 건축 기계 전기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정이 진행 중이다.

주요 공정에 대한 공정률은 터널 공사가 9.43%, 건물 신축 공사가 21.64%, 배관 공사가 24.17%, 전기 기기 설치 공사가 3.71%이다. 또한 국도 31호선 이설 공사는 8.52%, 항만 공사가 27.67%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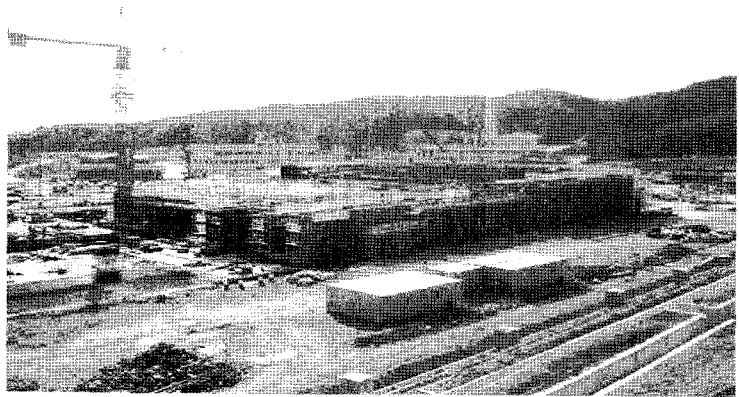
공사 수행의 기본적 방향을 친환경적으로 계획하고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시행중이며 민원을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년간 표류한 사업의 최초 시공사로 선정된 데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건설하여 세계적인 시설이 되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원자력사업 전 임직원들은 올 한해에도 3년 연속 시공 능력 평가 1위 업체의 위상에 걸맞게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조감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공사 현장

국내의 원자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대우건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아울러 현재 시공중인 신월성 원전 1, 2호기를 비롯한 방폐장 및 조밀 건설 현장 등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